



해외양계업은 지금...

— 편 집 부 —

일본

새로운 계란 정중량 포장방법 개발

일본에서는 최근 계란의 정중량 포장방법이 종전의 포장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방법은 (주)나벨사와 마루이 농협이 합작으로 (주)아오야마의 기존 세미오토펙커(semiautopacker) 방식에 조합계량 방법을 응용한 세계최초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올 1월에 특허를 받은 상태이다.

이 기계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제어, 포장단위의 갯수 지정, 합계중량과 허용 오차를 지정하는 등 컴퓨터에 의한 조합연산으로 목적하는 정중량을 팩에 담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예를들어 52~76g의 계란을 기계에 통과 시키면 10개들이 팩에 620~640g씩 원하는 중량으로 센서에 의해 기계가 작동하여 완벽하게 처리된다.

또 52~76g의 계란을 각각 16, 17, 18개들이 팩에 1,000~1,030g씩 원하는 무게만큼 포장, 처리되며 원하는 계란의 중량만을

팩에 담을 수도 있다.

이처럼 나벨사가 개발한 포장방법이 가능해지면서 계란의 정중량 포장에 의한 유통이 한층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이탈리아

생산량에 비해 수입급증

이탈리아의 가금생산량은 '92년에 1%이하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닭고기는 '91년에 680,000톤에서 685,000톤으로 0.7%로 성장율을 보였다.

반면 가금육 수입은 '92년 418,000톤으로 9.7%가 증가되어 가금생산량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중 32.2%가 EC에서 수입한 것으로 다른 EC회원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

카길사, 닭고기 가공공장 준공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길사가 프랑스의 오린지역에 늦어도 '93년까지 닭고기

해외양계업은 지금...



가공장을 준공할 것이라고 카길사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현재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태국, 영국, 미국 등 5개국에서 연 30만톤의 닭고기 계열화사업을 벌이고 있는 카길사는 자체 닭고기 공급이 영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유럽대륙의 소비시장을 더 확장하기 위해 프랑스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7,000m²의 대지에 1억2천만프랑의 투자금을 들여 준공시 150여명의 고용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브라질

닭고기값 폭락에 20% 감축 결의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6, 7월경 생산원가가 1불/kg인데도 육계가격이 0.5불/kg까지 폭락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마련을 위해 생산자들은 회의를 통해 20%의 생산감축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결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 결과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KFC 체인점 개설

Clal Leasing사가 KFC의 닭고기 판매 특허권을 얻으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처음으로 올 여름 KFC체인점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 특허권을 얻은 한업체가 KFC체인점을 운영하려다 부채로 인해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인도

양계인들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

인도는 양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던 중 옥수수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에 의한 사료비의 증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인들에게 세금과 전기료의 부담을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게 할 것이라고 인도에서 발간되는 poultry time의 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게다가 한정되었던 G.P의 수입을 전면자유화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